김성수
고신대학교 부총장, 기독교교육과 교수.

선진복지 사회를 향한 교육의 개혁

I. 서론

교육의 분야에서 대선주자들에게 바라는 바를 논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기술과 주문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발전, 학교폭력의 근절, 과외 열병의 치유책 마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청소년 경제교육의 활성화, 교원의 복지 수준 향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바램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바램은 교육이라는 문제 자체가 그 성격상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반영해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일일이 진단하면서 교육적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을 제한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라볼 때에 가장 심각하게 염려스러운 점이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공교육 제도의 교육 기회 독점과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

점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우리의 교육이 과연 어떠한 인간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부모의 교육적 책임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양육(교육)을 감당해야 할 일차적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부모의 양육적 기능이 없으면 아동들은 신체적인 면에서는 물론 정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격심한 곤란을 겪게 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신명기 6:4-9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를 교육시킬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엡 6:4 역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양육의 책임은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적인 책임이다. 성경은 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성장케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유엔인권현장(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역시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종류를 결정하는 일차적 책임과 권리는 부모가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 특별히 교육과 학교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다. 종교는 총체적인 문제이지 국부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의 활동중에서 어떤 활동은 더 종교적이고 어떤 활동은 다른 것보다 덜 종교적인 활동은 결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서 바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읽고, 달리는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봉사로 바쳐지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에게 바쳐지든지 하는 것이다. 기독교신앙은 근본적인 헌신이며 위탁이다.

지식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지식은 질서와 의미, 인간의 본질, 목적, 과업,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일련의 신념의 틀(framework)안에서 획득되고 축적되며 전수되어 간다. 지식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수동적 수납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전제를 따라 실재를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해석해 가는 것이다.

교육이란 아동을 이와 같은 지식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중립적, 탈가치적(value-free)인 행위일 수 없다. 교육은 그 기초와 방향, 구조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이 의미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 곧 삶의 비젼에 대한 표현이다. 교육이란 무엇보다도 인생관(view of life)을 양육해 가는 활동이다. 따라서 기독신자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교육이 그 모든 측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방향성 곧 자신들의 세계관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III. 제도교육의 기원과 발전

제도교육은 인간의 문화적,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다. 학교제도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는 부모들이 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발달과 인간사회의 분화와 성장, 그리고 이와 함께 아동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지식과 기술의 증가로 인하여 부모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임무와 필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필요한 시간과 기술이 부족하였다. 그 결과로 부모들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창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학교라는 제도는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즉, 다음 세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의 지식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안되어 발전된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은 가정의 교육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독특한 구조와 권위를 가지고 가정과 함께 아동의 교육적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학교는 가정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권위구조에 의한 교육의 형태를 부모로부터 완전히 위임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는 결코 가정의 연장(extension)이거나 대리물(substitute)이 될 수 없으며, 교사는 부모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가정에서 시행되는 부모에 의한 교육과 학교 교육간에는 가장 긴밀한 협조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 간의 관계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학교와 가정은 아동에게 베풀어지는 교육의 정신(spirit)과 방향(direction)에 있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강한 결속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 간에는 아동을 혼란과 내적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양자 간에 계속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아동은 양쪽 모두에 자신을 적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심리적 갈등과 가치관의 혼돈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 부모는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정신과 방향에 직접적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이 정신과 방향에 있어서 가정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어긋날 때에는 부모는 학교에 대해서 합당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학교와 가정 간에는 또 다른 하나의 관계 국면이 있다. 즉 교사들은 학교의 일차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 예컨대 교육과정의 계획, 학습내용의 선정, 교육의 방법, 훈련과 징계의 방법 등, 교수-학습의 제 국면에는 그들만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 부모들은 직접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부모들의 권위는 학교의 정신과 방향에 대해서 직접적이지만 교사의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행사될 뿐이다. 그 이유는 학교 제도는 원리적으로 부모들에 의해서 설립되지만 일단 설립되면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단지 특수한 상황에서만 교육에 간여하여야 한다. 즉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구성원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standard)을 결정해야 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저급한 수준의 문화발전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의 수준(질)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책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행사되는 정부의 간섭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치 기능의 정당한 행사이다.

국가는 또한 그 시민들에게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지 않도록 건전한 정치적, 윤리적 원리를 소유하고 가르치도록 요구한다. 국가는 국민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를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한 이데올로기가 학교에서 옹호되지 않는 한 국가는 부모가 주도해 가는 교육의 정신과 방향에 간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나아가 국가는 장래 시민들의 문화적 발달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가 제공한 이러한 제반 설비들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교육에 있어서 조정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필요한 법률제정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적 관계에 있어서 공의(justice)가 수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보장은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공공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상호관계에 있어서 공의를 조장하는 국가의 소명과 일치하는 책임이다.

국가는 공교육제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종교적 방향(religious direction)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국가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어떤 특정의 종교적 방향

만을 배제할 수도 없다. 모든 종교적 또는 이념적 공동체는 그 각각의 독특한 생활철학(vision of life)을 신봉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 각자의 학교를 설립 운영할 권리, 사실상에 있어서는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다원적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 각 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조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은 원리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나 부모들의 권리이자 책임이지만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는 국가가 공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장래 시민들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당한 방책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 제도가 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을 박탈하고 교육의 기회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IV. 공교육제도의 교육기회 독점과 문제점

교육에 관한 한,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모든 계층의 자녀들이 일정한 기간의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았다는 것이다. 옛날 같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극빈 가정의 자녀들도 오늘날에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다. 현대 사회의 공교육 제도하에서는 적어도 원칙상 일정한 수준까지 같은 질의 학교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은 평등사회의 한 이념이며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가 그러한 교육을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이 받도록 강제하고 그 기간 동안 소요되는 교육비를 국고로써 지원하는 소위 무상의무교육의 질과 양은 그 사회의 복지정책의 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학교 교육은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학교의 대형화이

다. 선진의 부유한 사회에서도 완전 취학의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적어도 30명 정도의 학급 규모를 가져야 하고 기본적인 학제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의 학년별 학급수로 조직되어야 하는 학교는 상당히 대형화될 수 밖에 없다. 둘째는 학교가 거대한 관료체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학교는 특정한 집단의 기구가 아니라 국가의 공교육체제하에서 운영되거나 통제받는 기구이므로 하나의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국가적 조직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조직체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료주의가 이를 지배하고 있다. 셋째는 현대의 학교는 모든 계층과 집단에 개방되어 있어 매우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나, 그 이질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이 어려우므로, 자연히 중산층의 문화를 위주로 하는 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대의 학교가 모든 계층의 자녀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평등교육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기구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공교육제도는 부모의 교육적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해 버렸다. 이제는 공교육제도가 교육의 모든 기회를 근본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독점이란 하나의 상표(brand)에 대한 독점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생산형태에 대한 독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것은 하나의 산업생산과정이 어떤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일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산업체의 활동은 경쟁에서부터 제외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을 공교육에다 적용하여 일리치(Illich)는 학교를 학습에 대한 근본적 독점을 확대해 가려고 노력하는 독점적 기구로 보고 있다. 일리치에 의하면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아동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화된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기술도 형식적인 학교교육의 결과인 한에 있어서만 가치롭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상에 한번 익숙하게 되면 학교제도 바깥의 교육은 무언가 사이비하고 불법적이며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더

군다나 학교의 학습은 구매하고 소비해야 하는 상품으로서 변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한 사회의 교육과 학습의 제 기회에 대한 접근을 급진적으로 독점하고 있고 학교가 생산하는 상품이 어떻게 포장되고 어떤 단위와 계열로서 포장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교육제도가 교육의 모든 기회를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이유는 제도교육이 교육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인력, 그리고 선의(goodwill)를 전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의 다른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적 과업을 떠맡지 못하도록 좌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 여가활동, 정치활동, 도시생활,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생활까지도 모두 교육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단념하고 대신에 그것에 필요한 습관이나 지식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학교에만 의존하게 된다. 공교육제도의 교육기회 독점은 다른 한편 현대의 문화적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와 같은 삶의 어떤 영역은 사적인(private) 영역이고, 기업이나 교육과 같은 여타 삶의 영역은 본질상 공적(public)이며 세속적(secular)인 영역이라는 문화적 이해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현대 교육은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들은 단지 그들이 일반적인 시민 정신을 넘어서서 그 어떠한 특정 종교나 도덕적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이며, 따라서 공적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다른 학교들은 사적이며, 따라서 공적인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신념을 수용하고 있다.

공교육 제도의 확대로 말미암아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은 이제 정부의 통제필요성에 완전히 포섭당해 버렸다. 정부의 통치기능은 학교교육에 엄청난 힘을 더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면에서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통제하고 있다. 공교육제도가 학교 교육을 여러 면에서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부모의 교육적 권한과 책임을 제한시켜버린 본질적 부정의를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일리치는 제도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이 교육과 학습을 이처럼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교육과 학습을 획일적으로 규정

된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같은 단일기관에 제도화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해로운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교육과 학습을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사회의 여타 다른 개인이나 기관도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교육의 기회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의 기회에 대한 공교육의 독점은 아동의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개발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는 전체 아동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과 기타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장래 지원자들을 선별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선발기능 또는 자격증 부여의 기능을 감당해 왔다. 공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E. Reimer에 의하면 직업 선택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자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가 학교제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되었다. 학교 제도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탈락하는 연령이 육체 노동을 할 것인가, 정신 노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한 그 사람의 봉급 수준을 결정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이 학교화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앞으로 생활해 갈 수 있는 영역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및 기타의 생활 양식 등 소위 모든 기회들이 학교의 성취 수준에 의해서 대체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을 상이한 종류의 직업과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선별하는 학교의 기능을 Reimer는 지극히 낭비적이며 그 결과에 있어서도 흔히 불행한 일이 많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선별 기능 또는 사회적 역할 선택의 기능 때문에 현대 학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해서 가공된 희망을 갖게 하며 이것은 또한 그들의 좌절감을 더욱 조장해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Reimer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보자: "학교의 선별 기능에 의해 승자가 탄생하지만 그와 동시에 패자도 또 생겨나며 학교의 선별은 인생의 선별로 연장되어 인생의 패배자를 만들어 내게 된다. 더구나 학교에서의 경쟁이란 마치 느린 자일수록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더욱 무거워지는 짐을 지고 더 먼 거리를 달려야 하며, 반

면에 빠른 사람일수록 자기의 성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빨리 달려 점차로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묘한 장애물 경주와도 흡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 지점은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정해져 있으며 거기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상이 수여된다."

이러한 공교육 제도에서 아동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학습하고 성취한다. A점수를 받거나 D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표에 A나 D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A와 같은 가치있는 인간이거나 아니면 D와 같은 무가치한 인간임을 의미하고 있다. 아동은 이러한 메시지를 학교교육을 통해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전달받는다. 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보상은 어떤 특정 행동 즉, 존경과 순종, 묵종 등과 같은 행동에 조건지워지는 것임을 아주 재빨리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공교육이라는 제도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개체 아동·학생의 요구와 능력이 제대로 만족하게 계발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공교육제도의 부실한 운영이나 학교 경영자의 무능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질이 높지 못하다는 등의 있을 법한 현실적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교육제도와 학교라는 사회적 기구 그 자체가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세계의 도처에서 전개되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비판자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과격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학교라는 사회적 기구를 폐쇄해 버리는 것이 옳다고 한다. 다소 온건한 비판론자들도 적어도 관료체제 속에서 통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학교의 운영이 보장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현대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부정 혹은 비판하는 대열에 선 사람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밝히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말해서 두 가지의 어느 하나 혹은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사회학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라면, 다른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내세우는 근거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에 현대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나 전달되는 내용

이 기존의 문화 체제를 주도하는 중산층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에 의해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의해서 소외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기존의 사회 체제 내지 문화 체제의 보존과 유지를 기하는 일을 잠재적으로, 표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창조성과 자율성의 계발과는 거리가 먼, 진정한 의미의 교육에서 이탈된 장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 즉 심리학적으로 설명되는 현대 학교의 질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권위와 통제가 지배하는 학교 사회는 자유로운 인간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제한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아동, 학생의 자유로운 성장과 자율적인 가치 계발을 위한 생활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주도하는 기존 사회에 적응하는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자의 구실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대 학교의 문제가 위의 어느 관점에서 설명되든지 간에, 비판자들은 모두 아동, 학생의 개성, 자율성, 창조성의 계발을 현실적인 학교 체제와 환경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런 한에서는 취학의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자들은 공격의 표적을, 학교가 기존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케 하려는 관습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합리성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으면서 주지주의적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과, 교육제도의 운영과 학교의 생활 관리를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것에 두고 있다.

공교육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현대 학교의 이러한 구조적 경직성과 편협성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교육의 개혁을 주장하는 교육학자들의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하여 지금도 계속적으로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구호는 학교가 인간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반드시 같은 어조의 같은 외침은 아니지만, 주지주의적 편협성, 관료주의적 획일성, 권위주의적 타율성, 관습주의적 경직성에 도전하고 있다.

V. 교육개혁의 기본적 방향

이상에서 논의한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교육 개혁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적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진흥책 마련

정부는 공교육 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의 모든 기회를 독점함으로써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육의 책임과 권리를 부모에게 되돌려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심은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장려하는 진흥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 교육제도는 부모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따른 분화의 원칙(world-life view differentiation)을 바탕으로 개혁되어 나가야 한다. 교육은 필연적으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상충하는 부모의 세계관을 공교육제도라는 하나의 용기에만 용해시켜 버리려는 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세계관이 확고하지 못한 기초는 교육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로서는 빈약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오히려 상이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구축되는 교육체계를 활성화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 교육 개혁 방안까지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마저도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국가가 유아 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교육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는 유아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여성 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의 부응,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 극대화, 및 유아 교육에 대한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 해소 등을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가 유아 교육마저도 공교육화해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유아 교육은 공립보다는 사립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더욱이 사립에는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 가정의 유아 교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대단히 높아

서 가계 부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오히려 기존의 사립 유치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면서 교육의 수준과 질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사학진흥 정책은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육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98년까지 GNP의 5%를 교육 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GNP 5%의 교육 재정만 확충되면 교육 개혁의 과제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98년 이후 이러한 교육 재원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고 배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의 책임과 권리를 부모에게 돌려주면서 이들 부모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하는 교육체제에 대해서 그들이 내는 세금의 정당한 수혜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대안학교 설립의 지원과 활성화

정부는 대안학교의 설립을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앞으로는 고교 설립기준이 최소화 되어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특성화된 다양한 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지난해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이어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키로 하였다. 고교설립 준칙주의는 고교유형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입시위주의 획일화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 나가는 교육 개혁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고교를 설립, 경영코자 하는 최소한의 설립 기준을 갖추고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시·도교육감은 반드시 이를 인가해 주어야 한다. 교육부는 새로 도입되는 고교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대중음악, 영상, 디자인, 문학 등 소규모 특성화 사립고 설립을 적극 유치하고 공사립 실업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정규학교로서의 법적 지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학교나 대안학교 운동등이 정규 고교체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사설학원의 정규고교 전환까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 시·도별로 특성화 고교 개교 신청을 한 학교는 디자인고, 원예고, 골프고, 자동차고, 영상미디어고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방향을 직업 및 과학기술 교육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디자인 전문 고등학교나 골프전문 고등학교의 설립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이다. 지금처럼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인 부모의 의견과 종교적 신념이 교육의 실제에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이, 부모는 그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은 큰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로 삼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공교육 체제의 종교성 문제이다. 사립 학교의 경우도 재단만 개인 소유일 뿐 모든 교육 행위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으므로 공교육 체제 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교육 체제는 원래 다양한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자녀를 다 받아 들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나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쳐서는 안되고 '가치 중립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가치와 합리적 지식만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은 가치나 신념의 진공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가치 중립을 내세우는 공교육 체제에서도 특정 종교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 공민 종교, 자본주의 종교, 인본주의, 출세주의 등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교가 가르치는 지식은 객관적이며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절대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공립학교의 교과서를 분석한 Paul Vieth와 Harro Van Brummelen 등은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공교육이 외적으로는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오늘날 공립학교의 교과서는 소비지향적 태도, 자기의존적 개인주의, 과학주의와 기술주의, 인본주의와 출세주의를 교육내용이나 학교 체제를 통해서 은근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세금과 학비를 부담하면서 자신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는 정반대에 있는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야 하는 모순이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단지 국가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에는 대안적인 새로운 기독교 학교가 있어야 한다.

3. 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

이미 언급한대로 아이들의 기본적 양육과 훈련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학교가 어떠한 곳이 되는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부모들과 학교는 서로를 이해할 때에만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학교의 주요 방침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갖는 경우에만 학교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 작업의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업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히 육성회와 비슷한 것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일차적 책임자요 권리자로서의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방향성을 검토하고 학교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한 방법이다. 학교는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부모를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침체된 우리 교육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4.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공교육제도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열린 평생 성인 학습 체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의 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선진 복지 사회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생을 통하여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사회이다.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육에의 통로가 어디서나 열려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장애인, 도서 벽지 및 농어촌 학생을 포함하여 누구나 학습을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열린 학습망이 제대로 건설되는 열린 학습 사회에서의 교육 자원은 지금의 학교 교육처럼 교육자가 설정한 커리큐럼의 목표에 따라 분류될 성질은 아니다. 그 대신 학습 위주의 교육 자원 배분을 명확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런 목표 달성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원격 교육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이나,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Reimer나 Illich 등이 제안하는 학습망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이다. 이들이 제안하는 학습망은 학교 제도와는 대조적으로 생산 체계보다는 네트워크(network)의 형태를 취한다. 이 학습망은 크게 보면 두가지인데, 하나는 사물의 네트워크(networkof things)이며 다른 하나는 인력의 네트워크(network of people)이다. 사물의 네트워크는 교육적 가치를 갖는 사물의 집합인데 이것들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새로운 정보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들 네트워크에의 접근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의 질은 오직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의 질과 완벽성의 수준에 달려있다. 인력의 네트워크는 기술교환(skill exchange), 동료의 선택(peer matching), 그리고 교육자에의 접근(access to educators)을 위한 알선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교환은 기술모델, 다시 말하면 특정기술에 유능한 개인들에게의 접근을 제공해 주는 센터이다. 그리고 동료는 그들의 관계로부터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소간 상호간의 목적에 동등하게 공헌한다. 동료관계는 자유로이 선택되며 또한 자유로이 유지된다.

고등교육분야에서 교육부가 취한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열린 평생 학습 사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학점은행제 실시, 시간제등록, 원격교육지원등은 열린 평생 교육사회를 지향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이러한 방향은 개혁은 우리 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VI. 교육개혁은 어떠한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교육은 목적있는 활동이다. 공교육 제도의 폐단들을 개선해 나가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간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1. 책임성있는 전인적 인간형성을 교육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책임성있는 전인적 인간이란 가치있는 것을 보존하고 전승할 줄 알며, 사물과 시대의 정신을 분별할 줄 알고, 인간과 사회를 변혁해 갈 수 있는 태도와 의지, 그리고 능력을 겸비한 인간이다.

1) 보존자로서의 인간

Neil Postman이 말한 것처럼 참된 교육이란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존시키는 활동이다. 급변하는 가치 전도의 시대에 교육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 봉사와 자기 희생 등 무엇인가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공고한 의미를 강조하여야 한다.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전통과 세계관,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 주체성, 축적된 지혜를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전수해 주어야 한다. 교육 개혁은 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는 의미의 상실

과 공허함에 대처해 나가는 일에서 우선적 과제를 찾아야 한다. 참된 교육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계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며, 그 치유책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 질문이다.

2) 구별자로서의 인간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분간(discern)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활동이다. 참된 교육은 무엇보다도 아동으로 하여금 창조주와 피조물을 올바로 분간할 줄 알며, 인간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의 영역을 분간하면서 각각의 영역에 그 정당한 위치와 합당한 권한을 부여할 줄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시대의 정신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와 인간 경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격려하여야 한다. 탐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지식획득의 방법과 새로운 통찰을 조장해 줌으로써 시대의 반주지주의적 경향과 조잡한 사고에 도전할 줄 아는 인간 형성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적 인간상이다.

3) 변혁자로서의 인간

참된 교육은 보존과 동시에 변혁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롭고 보다 나은 비젼에 인도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억압과 불의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을 변혁하고 문화를 변혁해 갈 수 있는 인간을 지향하여야 한다.

2. 아동의 잠재적 가능성의 개발을 교육 개혁의 목표로 해야 한다.

좋은 교육 제도는 하나님께서 아동에게 허락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늘날 교육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지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다. 지능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

은 대체로 지능 검사로서 측정할 수 있는 협의적인 정신 능력의 집합으로서 인식해 왔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현명하지 못하거나 교육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정의는 인간 인식의 구성 요소 가운데 정신 능력을 훨씬 광범위한 정도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능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적 변화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교육적 변화 결과를 예견해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의 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능이 어떤 단일적인 종류의 것, 즉 검류계로서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이 지능검사로서 측정할 수 있는 종류의 두뇌 능력이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받아 들여져 왔다. 1905년에 최초로 지능검사를 광범위하게 사용케 하는데 공헌한 불란서의 심리학자 Alfred Binet가 지능을 다양한 정신 기능의 행사로 보았지만, 그의 제자였던 영국의 심리학자 Charles Spearman은 이들 다양한 정신 기능에 공통적인 어떤 단일 요인이 있다는 원리를 주창하였고, 이 원리는 곧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 Spearman은 이 요인을 "일반지능"(general intelligence)이라고 불렀으며, 이를 소문자 "g"로 나타내었다. 모든 인지적 활동은 이 "g"요인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 "g"요인이 기본적으로 생래적인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 요인에 다소간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간에 항상 논쟁이 있었고, 엄청난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왔지만 Spearman 이후로 심리학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g"요인의 존재를 신봉하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보다 새롭고 개량된 검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능 검사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소홀히 취급된 사실이 점차 지능 측정의 신뢰도에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즉 이 지능검사의 점수들이 학교에서의 성공여부는 비교적 잘 예언하는 반면에, 지능 검사에서 얻은 점수와 나중 그들의 실제 사회 생활에서의 성공 여부간에는 상관성이 희박

하더라는 사실이다. 아동기때 뛰어나지 못한 지능 지수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 실제 사회 생활에서 탁월성을 나타내고, 소위 '천재'로 평가받은 사람들이 보통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경우들이 비일 비재하게 드러났다. 확실히 표준화된 지능 검사가 측정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복잡한 집합 요소의 단지 한 적은 부분일 뿐이며, 그것도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인지적 능력과는 무관한 부분일지 모른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게 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지능의 이 "g"요인 개념은 더 이상 과학적인 논의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자리에 더욱 다원론적인 견해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연구는 Howard Gardner의 다중적 지능이론이다. Gardner는 신경학, 인류학, 심리학, 병리학 등과 같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적 상호독립적인 7개의 지적능력들을 확인하고 있다.

1) 언어적 지능 (linguistic intelligence): 단어의 의미와 순서에 대한 민감성 -- 시인, 번역가 등 (T.S. Eliot)

2) 음악적 지능 (musical intelligence): 박자, 멜로디, 리듬, 음정 등에의 민감성 -- 작곡자, 성악가 등 (Stravinsky)

3) 논리적-수학적 지능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일련의 추론 과정을 취급하며 패턴과 질서를 인식하는 능력 -- 수학자, 과학자 등 (Einstein)

4) 신체적-운동기능적 지능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신체를 숙련되게 사용하고 물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 -- 운동가, 무용가, 외과의사 등 (Martha Graham)

5) 공간적 지능(spatial intelligence):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 세계의 제 국면을 재 창조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 -- 조각가, 건축가, 측량사 등 (Picasso)

6) 대인관계적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인간과 인간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 정치가, 판 촉가, 종교지도자 등 (Gandhi)

7) 대내인간적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아와 타인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개인의 정서 생활에의 접근 능력 -- 임상치료자, 사회사업가 등 (Freud)

Gardner는 이상에서 언급한 7개의 지능들이 분리된 개별적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생리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Gardner의 이러한 연구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우리들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지능에 대한 획일적인 관념을 공격하는 것이다. 교육은 단지 소수의 아동을 선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동의 잠재적 재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도록 촉구하고 있다. 선진 복지 사회는 언제나 아동의 무한하고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 체제 구축에 교육 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공동체적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대규모 생산체제처럼 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공교육 제도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풍요하게 해 줄 수 있는 인간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 대규모 생산은 취급의 유사성과 결과의 일치성을 가진다. 자기 중심적이며 개인주의적 자율성과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공교육은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대규모를 양산해 내고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학교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에 가면 대부분 조용히 있고 경쟁하고 성취하며 성공하기를 배우는 일"이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음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 문화를 잘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성취하면 우리는 너를 사랑할 것이라' 고 하는 '조건화된 사랑의 윤리' (ethic of conditioned

love)이다. 경쟁에서의 성취를 향한 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의 결과이다. 우리의 문화적, 교육적 영웅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성취하는 개인이다. 우리 교육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줄 아는 고난 받는 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본질은 계속해서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리고 성취와 진보는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문화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유명한 저서를 낸 Robert Bellah와 그 동료들은 Habits of the Heart에서 두가지 종류의 개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공리주의적(utilitarian) 개인주의와 표현적(expressive) 개인주의이다. 전자는 Ben Franklin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나에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나"라는 접근인데, 전통적 충성심을 시장 동기로 대치해 버린 합리적, 자기-관심적 개인주의로 가장 잘 대표될 수 있다.

한편, 표현적 개인주의는 모든 구속과 재재로부터 자유하는 삶, 경험이 풍부한 삶, 지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도 호화로운 삶, 강렬한 감정의 삶을 찬양한다. Walt Whitman적 접근으로 불리우는 이 접근은 인간의 풍요한 삶을 찬양하지만 나의 풍요와 번영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개인주의 모두가 오늘날 공교육제도의 학교 교육 상황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진보하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며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개인적 성취, 자아실현, 그리고 개인적 번영을 위해 교육받는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개인주의 모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며 그들과 함께 기뻐할 줄 할고 슬퍼할 줄 아는 일과는 별 관계가 없다. Bellah의 큰 관심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가 새로운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찾았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친밀성을 다

른 어떤 곳에서 찾아야만 한다. Bellah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망(social network)을 "고립된 영토와 같은 삶의 양식"이라고 부르면서, 공동체가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상호관련성을 찬양하고 상이한 소명들의 상호관련성을 찬양하면서 포괄적 전체가 되기를 노력하지만 삶의 양식은 근본적으로 분리적이며 유사성의 나르시즘을 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비슷한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상종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가와 소비도 비슷한 수준에 의거하여 추구하고 있다. 이제 삶의 양식(lifestyle)이 한 사람의 직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누가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는가?"하는 질문은 '하나님', '교회', 또는 '공동체'라는 것이 대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나'(self)라는 것만이 대답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위한 '심리적 보상'(psychic reward)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Bobert Coles에 의하면 오늘날 아동들이 '올바른'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어떤 확고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이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에, 또는 그런 일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니까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한다. 아동들은 상당한 정도로 그들이 살고 있는 보다 큰 사회의 가치를 단순히 반영해 보여준다. 오늘날 아동들에게서 우리는 소위 "문화적 문맹률"(cultural literacy)은 낮아져 가지만 반대로 "도덕적 문맹률"(moral literacy)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가치와 삶에 올바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일에 교육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VII. 맺는 말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과 권리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셨다. 국가가 교육에 간여하는 것은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소홀히 할 때, 또는 부모가 담당하는 교육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때이다. 학교라는 제도는 사회의 분화와 발달로 말미암아 부모가 교육적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신들의 교육적 책임과 권위의 일부를 교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교사들은 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는 자신들에게 교육의 책임과 권위를 위임해 준 부모들의 요구를 따라 교육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 제도는 특정한 상황에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교육 제도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신념을 요구할 수 없다. 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는 어디까지나 부모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국가에 다 넘겨주고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부모들에게 교육적 책임과 권리를 되돌려주는 교육적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활동은 근본적으로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는 활동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다양한 신념 집단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진흥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모들은 국가의 정당한 보호와 후원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세계관에 일치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교육 제도의 확대만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는 허상을 버려야 한다.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교육 개혁에 임하면서, 책임성있는 전인적 인간 형성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

발시켜 주는 일,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와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의 목표를 구현하는 일에 최대의 역점을 둘 수 있어야 한다. ⌘